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 전화 : 86-10-6505-2671/3
 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 장비산업 부가가치 지난 10년간 연평균 8.2% 성장

-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12~2021년 장비산업 부가가치가 연평균 8.2% 증가하였으며, 아울러 장비산업은 제조업의 경기 회복을 추진하였다고 밝혔음
- 2021년 말 기준 장비산업 분야 규모이상(연매출 2,000만 위안 이상) 기업수는 10.5만 개사로 2012년 대비 45.3% 증가하였으며, 자산, 매출, 이윤 총액은 각각 28.8조 위안(약 5,750조원), 26.5조 위안(약 5,291조원), 1.6조 위안(약 320조원)으로 2012년 대비 각각 93.0%, 47.8%, 28.8% 증가세를 보였음
- 공작기계 부문에서 중국은 22대 부류의 제품군을 형성하였고 굴착기, 기중기, 화물 적재기 등 주요제품 생산량은 글로벌 1위를 달성하였음
-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중국의 장비 제조업은 중고급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기로, 향후 핵심기술 공략, 산업기반 공고화, 우수기업 및 산업클러스터 육성, 산업정책 제정·발표, 장비산업 디지털화 발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

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2-09/07/content_25938368.htm

2 中, 산업망·공급망 안정 위한 국제포럼 개최

- 중국 국무원은 오는 18일부터 20일 기간 동안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산업망·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산업망·공급망을 수호하고 공동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

-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상반기 발표 및 조정한 화이트리스트(근로자들이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폐쇄루프 방식으로 중국정부가 조업 재개를 허가한 기업 명단) 기업은 1,722개사이며, 2만 여개 화이트리스트 기업의 지역 간 상호 승인을 추진하였음. 이 외 자동차, 집적회로, 중점 의료물자 등 분야의 산업망·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에서 반영한 원자재 수급, 직원 복귀, 물류 운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음
- 공업정보화부는 향후 중점 지역, 업종,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정작업을 통하여 지역간,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간 연동을 강화에 집중할 계획

자료원 : 중국망

http://life.china.com.cn/web/rdgz/detail2_2022_09/16/3607182.html

3 베이징시, 8월 수출입 역대 최고치 달성

- 베이징시 해관 통계에 따르면 1~8월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18.3% 증가한 2조 3,200억 위안(약 463조 원)이며, 이 중 수입은 25.7% 증가한 1조 9,600억 위안(약 391조 원), 수출은 10.8% 증가한 3,600억 위안(약 72조 원)임. 8월 수출입은 23.5% 증가한 3,294억 위안(약 66조 원)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
- 1~8월 베이징 지역의 국유기업 수출입이 전체의 73.6%를 차지했고 민영기업 수출입은 8.9%에 불과했음. 한편 일대일로 주변국간 수출입 규모는 30.2% 증가한 1조 200억 위안(약 204조 원)으로 전체의 44%에 달했음
- 동 기간 베이징 지역은 자가용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였음. 대형 승용차(10인석 및 이상), 화물차, 특수차량 등의 수출량은 35.3% 증가한 3.8만 대, 수출액은 40.6% 증가한 52억 위안(약 1조 원)으로, 주요 수출대상 지역은 아세안, 칠레, 콜롬비아 등으로 나타남

자료원 : 중국신문망

<https://news.sina.cn/2022-09-14/detail-imgqsmrn9022330.d.html>

4 中, 냉장고·에어컨 등 생산량 글로벌 비중 50% 이상

-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21년 규모이상(연매출 2,000만 위안 이상) 가전업체의 매출 총액은 1.7조 위안(약 339조 원), 이윤 총액은 1,219억 위안(약 24조 원)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.5%, 4.5% 증가하였음

- 가전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% 증가한 1,000억 달러(약 140조 원)로 160여개 국가와 지역에 제품을 수출했고 글로벌 20억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음. 한편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 등 글로벌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한 백색가전 생산량 비중이 50% 이상에 달했음
- 올해 1~7월 가전제품 생산량은 각각 냉장고가 전년 동기대비 5.9% 감소한 4,882만 대, 에어컨은 1.1% 증가한 1억 4,079만 대, 가정용 세탁기는 2.9% 감소한 4,769만 대로 집계

자료원 : 화상보

http://www.ce.cn/cyssc/zgjd/kx/202209/15/t20220915_38105398.shtml

5 中, 1~8월 화장품 수입량 및 수입액 모두 감소

-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~8월 화장품 및 샴푸 등 세면용품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7.3% 감소한 28만 톤, 수입액은 4.6% 감소한 973억 위안(약 19조 원)이었음
- 8월 당월 수입량은 4만 톤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했지만 수입액은 128억 위안(약 2.6조 원)으로 전년 동기대비 6.4% 감소하였음
- 최근 중국의 화장품 수입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, 코로나 19의 영향,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시행, 화장품 소비 부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

자료원 : 화장품재경재선

<https://www.cbo.cn/wap/article/view/id/51057>

6 中, 중고가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상승세

-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Counterpoint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가 스마트폰 판매액 비중이 지난해 31%에서 33%로 상승하였음
- 상위 6대 브랜드의 고가 시장 점유율이 95%에 달했고 1~6위로는 애플(46%), 비보(13%), 화웨이(11%), 아너(9%), 샤오미(8%), 오포(8%) 순임
- 최근 애플과 화웨이는 최신 모델 iPhone 14와 Mate50을 출시하고 판매가를 5,999위안(약 120만 원), 4,999위안(약 100만 원)으로 책정하였으며, 이 두 모델은 지상 신호 수신 이 불가능한 곳에서 위성 신호를 통하여 긴급 구조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

- 현재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가는 대체로 2,700위안(약 54만 원)에서 3,000위안(약 60만 원) 사이이며, 2,000위안(약 40만 원) 이하 가격대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고가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임

자료원 : 경제일보

http://www.ce.cn/cysec/tech/gd2012/202209/15/t20220915_38105559.shtml

7 中, 자전거타기 붐으로 자전거 소비 업그레이드 추세

- 최근 중국인들의 자전거 타기 붐으로 산악·로드 자전거, 자전거 부품, 자전거 운동장비 등이 인기를 끌고 있음
- 징둥상청(JD)에 따르면 '618' 판촉 행사 기간에 자전거 부품 거래액이 전년 동기대비 100% 증가했고 자전거 운동장비 거래액도 80% 증가했으며 다양한 브랜드의 자전거 속도계, 헬멧 거래액은 무려 300% 이상 급증했음
- 텐진시의 모 자전거체험관 관계자는 올해 모든 브랜드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50% 증가했다고 밝혔으며, 베이징시 모 자전거 브랜드 플래그십숍 관계자는 최근 두달간 1만 위안(약 200만원) 가격대의 로드 자전거는 전국적으로 품절되었으며, 주문 후 3개월을 기다려야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전했음
-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도시 주변 관광을 즐기면서 자전거가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도로 인프라 시설 개선 및 일부 도시의 스포츠�관광 산업 육성, 자전거 경기 개최 등으로 자전거 타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함

자료원 : 신화망

http://fashion.ce.cn/news/202209/14/t20220914_38102364.shtml

8 원난성, 전기사용 제한으로 전해알루미늄 생산량 감소 예상

- 원난성에서 전력 공급 부족으로 9월 10일부터 전해알루미늄 생산업체의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하여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
- 상하이강렌(Mysteel) 알루미늄사업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원난성에서 전해알루미늄 공장의 전기 사용량이 2차 산업 전기 사용량의 41%, 원난성 전체 전기 사용량의 30%에 근접하였음

- 상하이비철금속망(SMM)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원난성의 알루미늄 생산능력은 522만 톤으로 전국의 12.8%에 달했고, 이번 전기사용 제한정책으로 생산능력 70~80만 톤이 영향을 것으로 예상됨
- 업계에서는 이미 전해 알루미늄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며, 중국 자본시장 분석업체 통화순(同花顺)에 따르면 런던금속거래소(LME) 알루미늄 현물 가격이 9월 13일 0.92% 상승한 톤당 2,309.5달러(약 320만 원)로 주간 2.19% 상승세를 보였음

자료원 : 증권일보

http://www.ce.cn/cysec/ny/gdxw/202209/15/t20220915_38104665.shtml

9 中,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 톤당 50만 위안대로 상승

- 상하이강철편(Mysteel)에 따르면 9월 13일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2,600위안(약 51.6만 원) 상승하여 50만 위안(약 9,929만 원)을 기록했는데, 이는 2021년 연초의 8배, 올해 초 대비 80% 상승한 수치임. 9월 14일에도 톤당 50만 위안(약 9,929만 원) 가격대를 유지함
- 리튬 자원 부족과 리튬 가격 상승세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은 광산개발 뿐만 아니라 배터리 회수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음
 - 청해염화공업(盐湖股份)의 9월 13일 발표에 따르면 당사는 3만 톤의 탄산리튬 생산능력을 갖추었고 자체 건설한 생산능력 4만 톤 규모의 탄산리튬 일체화 프로젝트도 2024년부터 가동되며, 비야디와 공동으로 생산능력 3만 톤 규모의 탄산리튬 프로젝트도 추진 중임
 - 귀쉬안가오커(国轩高科)도 9월 14일자로 장시성 이핑(宜丰与)과 평신(奉新) 지역에 각각 생산능력 5만 톤 규모의 탄산리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음. 이 외 간평리튬(赣锋锂业), 장거광업(藏格矿业), 텐치리튬(天齐锂业) 등도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
 - 닝더스다이(CATL)는 2015년부터 배터리 회수 시장에 진출하였고 비야디, 화유코발트(华友钴业), 간평리튬 등 기업들도 이미 해당 시장에 진출하였음
- 업계에서는 신에너지차 시장의 빠른 발전으로 배터리 탑재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단기간 탄산리튬 수급 문제가 지속되면서 탄산리튬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기업들은 원가 상승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일체화 산업망을 구축할 것으로 분석함

자료원 : 증권일보

http://www.ce.cn/cysec/ny/gdxw/202209/16/t20220916_38107709.shtml

10 中, 임플란트 가격 제한 정책으로 수요 증가 예상

- 중국 의료보장국은 9월 8일자로 '치과 임플란트 의료서비스 비용 및 소모재 가격 정비에 관한 통지'를 발표하여 임플란트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
- 3급 공립병원은 임플란트 서비스 가격이 4,500위안(약 90만 원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3급 이하 공립병원은 이에 상응하게 하향 조정하며, 특정 요구에 부합되는 지역 및 의료기관도 기준가격의 20%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
 - 상기 정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 지역에서 본격 실시될 예정임.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임플란트 평균 가격은 6,000위안(약 119만 원), 일부 도시는 9,000위안(약 180만 원) 이상에 달하는 곳도 있었음
-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높으며 임플란트 가격이 인하되어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 정책 발표에 따라 룡위그룹(融钰集团), 웨신건강(悦心健康), 루이강의약(瑞康医药) 등 상장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였음
- 2021년 말 기준 중국 NMPA(국가약품감독관리국) 인증을 보유한 임플란트 제품은 총 117개로, 이 중 중국산이 18개, 수입산이 99개로 전체의 80% 이상을 차지했지만 향후 정부에서 임플란트 소모재에 대해 대량구매를 실시하면 중국산이 수입산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, 중국상보

<https://www.zgswcn.com/article/202209/202209151412511036.html>

<http://health.people.com.cn/n1/2022/0916/c14739-32527472.html>